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2011.11

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목 차>

I. 서언 -----	4	IV.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	25
1. 연구의 목적 -----	4	1. 축제의 성격 -----	25
2. 연구의 방법 -----	5	1) 과학과 문화가 접목된 시민의 축제 -----	25
II. 대전의 축제 -----	6	2)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	26
1. 축제의 현황 -----	6	2. 축제의 추진체계 -----	27
2. 축제의 특성 -----	8	1) 민간중심의 축제위원회 구성 -----	27
3. 축제의 효과 -----	10	2)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28
III.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	11	3. 시민중심의 축제 -----	30
1. 개요 -----	11	1) 자원봉사의 활용 -----	30
1) 개최배경 -----	11	2)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 -----	31
2) 역대 개최 현황 -----	11	4. 도시마케팅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	33
2. 성과 -----	13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	33
1) 2011 행사 개요 -----	13	2) 주 5일제 수업을 겨냥한 도시마케팅 -----	33
2) 행사의 결과 -----	15	V. 결론 -----	35
3) 결과의 평가 -----	17	※ 도움을 주신 분들 -----	36
3. 문제점 -----	20		
1) 축제의 상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20		
2) 지역의 연구기관과 상호 연계협력이 미흡 -----	20		
3) 여타 지역 축제와 연계성이 부족 -----	22		
4) 행사에 대한 사전 기획력 부족 -----	23		

# I. 서언

## 1. 연구의 목적

- 그간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대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뚜렷한 축제가 없는 실정임
  - 대전에는 한밭문화제, 선비축제, CO2축제 등 대표축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음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지난 1980년대 이래 대전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는 상징은 무엇보다도 ‘과학’이라 할 수 있음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도시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점차 축제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1회(2000년)에서 4회(2003년)까지는 문화관광부, 5회(2004년) 6회(2005년)는 한국문화재단으로부터 행사지원을 받았으나 2006년부터는 대전광역시와 엑스포공원의 예산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더불어 국가 연구과학의 거점지구로서 대전의 위상이 높이고 시민의 과학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축제의 활성화가 필요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시민 전체의 축제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대덕의 출연 및 민간연구원들의 참여가 부진하면서 축제의 효과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2. 연구의 방법

- 대전광역시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표축제 발굴의 필요성 검토
  -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
- 2000년 이후 개최되었던 역대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점 분석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담당자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그간 행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점을 도출
- 대전에 소재하는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지역 연구원과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시민의 축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인의 참여가 중요한 행사인데 그간 지역 연구기관의 참여가 부진하여 그 이유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 지역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범위, 개최시기, 행사주관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관 사이의 연계 추진을 통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 II. 대전의 축제

### 1. 축제의 현황

- 대전에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의미뿐 아니라 대전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전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가 있음 <표 1>

<표 1> 대전광역시 축제 현황 (2010. 12. 31. 현재)

축제명	개최기간	주최/주관	축제내용	최초년도(회수)
견우직녀 축제	8.14-15 (2일간)	대전광역시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통문화 예술체험 및 행사	2006년도 (5회)
대전열기구 축제	10월중 (2일)	서구	항공대회, 체험행사, 시범행사 및 부대행사	2003년도 (7회)
생명축제	4월중 (2일간)	동구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문화예술공연, 봄꽃체험전	2000년도 (11회)
대전역영시 축제	8.12-16 (2일간)	동구	문화예술행사, 체험전 등	2009년도 (2회)
신탄진 봄꽃제	4.3-5 (3일간)	대덕구	개막공연, 무대행사, 체험행사, 전시회	1990년도 (21회)
우암문화제 제전	11월중	동구	유가행렬퍼레이드, 송자송모거리행진	1995년도 (15회)
효문화 뿌리축제	4.17-18 (2일간)	중구	성씨 축원제 및 족보,자료 기증식, 문중 체험관	2008년도 (1회)
동춘당 문화제	9월중	대덕구	송모제례 재연, 오행차시연, 다문화체험 동춘선생문장친글씨전, 전국회화대회 문정공 시호행렬, 경전강독대회	1995년도 (15회)
수상뮤지컬 갑천	6월중 (4~5일)	서구	수상뮤지컬 갑천공연, 갑천문화체험장 운영, 수상뮤지컬 갑천 사진 전시,	1996년도 (13회)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4.24-25 (2일간) 10.5-10	서구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 녹색성장 체험전, 기초과학 체험전, 대덕특구 첨단과학전, 과학뮤지컬	2000년도 (13회)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현황'(2010)

- '견우직녀축제'는 사랑, 만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우리 고 유명절인 칠월칠석에 사랑의 떡을 나누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점점 잊혀

가는 '견우직녀', '칠월칠석'을 전통과 문화·예술 행사가 어우러지는 '견우직녀 축제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함

- '대전 열기구 축제'는 대전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진과학도시 대전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로 시작된 축제로서 관광도시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축제임
- '동춘당 문화제'는 대덕의 유학자인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학풍과 인격을 재조명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축제임
- '우암문화제'는 대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과 사상, 학문, 예술세계를 이해시키고 홍보함은 물론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매년 동구에서 거행됨
- '신탄진 봄꽃축제'는 대덕구 일원에 만개한 화사한 벚꽃 및 개나리꽃 속에서 지역 특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 축제로 개최되며, 향토식당 300여 개소로 3, 4일간 운영되고 부대행사로는 노래자랑, 농악, 풍물놀이, 주민화합 한마당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을 테마로 개최되는 축제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함
  -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광역시의 '과학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과학의 대중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대전에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으나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대전의 축제가 시민의 참여를 늘리고 정체성이 뚜렷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을 테마로 한 대표적인 문화축제의 발굴이 시급함

## 2. 축제의 특성

- 지역축제는 전통적인 ‘제례’, ‘페스티벌’, ‘카니발’, ‘이벤트’, ‘엔터테인먼트’의 의미가 혼합되면서 그 개념적 정의에 논란이 일고 있음
  - 지역축제의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는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오늘날 축제는 종래의 제례적 의미가 약화되고 일상으로부터 이탈하여 즐기는 오락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
- 지역의 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방인을 타깃으로 한 것과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행사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축제는 흔히 해당 자치단체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이나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함
  - 지역축제의 의미가 주민이 함께 즐기며, 공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둘 경우 지나친 경제논리에 기초한 행사는 주민의 동참을 얻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축제는 의미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면서 즐기는 행사여야 함
  - 축제는 지나치게 계몽적이거나 학습적이면 부담스럽고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
  - 과학을 테마로 한 축제는 주로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서 자칫 지나치게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위험성이 큼

## ○ 축제의 구성 요소

구분	항목
누가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공사, 공단, 학교 등을 포함)</li> <li>○ 공공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 단체(마을회 등)</li> <li>- 인적단체(자원봉사단체, 국제협력단체 등)</li> <li>- 지연적 인적단체(청년회, 부인회 등)</li> <li>- 직능 단체(상공회, 농협 등)</li> <li>- 공익법인, 공공관여도가 강한 제3섹터 등)</li> </ul> </li> <li>○ 기업·영리단체</li> <li>○ 기타</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복수(공동개최, 협찬, 후원)</li> </ul>
언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별, 월일, 요일, 시간, 기념일 등</li> <li>○ 일정한 사회문화조건(낙성식, 계획개시 등) 구비</li> <li>○ 일정한 자연환경조건(개화, 철새가 날아오는 시기 등) 구비</li> </ul>
무엇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행사, 스포츠행사, 문화예능행사, 제례, 관광행사, 지역경제개발진흥행사(이미지업·정보발신 등), 계몽행사, 관측행사, 페어·컨벤션 등</li> </ul>
어디에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 지역내, 지역외(해외, 전국, 타 도시 등)</li> <li>○ 장소 : 인공시설(경기장, 호텔, 시민회관 등), 자연자원(바다, 고원 등)</li> </ul>
어떻게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규모, 집객 규모, 참여자 규모, 운영 규모</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일, 주, 월), 사이클(일회성·계속성)</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구성·연출 및 운영</li> </ul>
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진흥·개발·교육, 지역개발·사회복지·기념 등)</li> <li>○ 영리(관측·PR)</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자(지역·연령·성별·직종·외국인·고객 등 관계자)</li> <li>○ 일반생활자</li> </ul>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2003)

## ○ 축제의 종류

- 축제는 전설이나 풍습에 기초한 전통문화축제, 문학·미술·음악·연극 등을 주제로 한 예술축제, 추모제·선발대회·체육행사·오락프로그램 등의 기타축제, 체육행사·오락프로그램·전통 문화적 요소·예술적 요소 등이 혼재된 종합축제 등으로 분류됨

- 축제는 목적에 따라 전통문화행사,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3. 축제의 효과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관광수입 및 외화수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축제를 위한 건설비, 운영비, 관련 공공사업비의 지출, 관련 민간설비 투자 등의 생산유발효과를 유발
- 축제 이벤트사업과 관련한 소비, 투자지출에 의하여 유발된 활동은 해당 자치단체의 고용과 그에 의한 소득을 창출하며, 동시에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축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사회하부 구조를 건설하며, 이벤트 사업을 위해 전경 개선과 도시개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주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전통·문화·풍습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며, 홍보·선전효과를 가져다 줌

## III.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 1. 개요

#### 1) 개최배경

- 1971년 한국과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대전은 1993년 대전엑스포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국가 과학의 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굳혀왔음
  - 대전은 1996년 세계과학기술도시 국제심포지엄, 1999년 WTA 및 대전 테크노마트 등을 개최하면서 첨단과학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왔음
- 국제적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상확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 축제를 보유할 필요성이 대두됨
  - 대덕연구단지, 과학공원, KAIST, 국립중앙과학관 등 지역 내 과학축제의 개발을 위한 소재가 풍부하며, 종합과학교육단지로서 사이언스 벨트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후 방치되었던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모델링 발전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 대두
  - 과학을 소재로 한 지역 특화형 축제이벤트를 개최하여 소비적 지역축제 개념을 벗어난 생산적 차원의 축제가 필요

#### 2) 역대 개최 현황

- 자라나는 세대의 과학마인드 제고와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이언스페스티벌은 2011년 현재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음
  - 과학도시라는 대전의 특성을 담아 개최되었던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처음 6억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2005년 제6회째는 대회의 규모가 커지면

서 14억 규모의 행사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이언스페스티벌은 2006년 제7회를 기점으로 페스티벌의 예산규모가 7억5천으로 줄어들면서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음

회수	주 제	기 간	사업예산(천원)	집행액(천원)	방문객수	비고
제1회	얼려라 과학천국 click Scientopia	200 8.11(금)~8.20(일) (10일간)	계 555,000 국비 90,000, 문광부 40,000, 과기부 50,000 사비 110,000, 공원 355,000	계 613,585 국비 90,000, 문광부 40,000, 과기부 50,000 사비 110,000, 공원 413,585	계 231,918 유료 115,494 무료 72,352, 부대 43,872	
제2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 science is Magic	201 8.11(토)~8.20(금) (10일간)	계 925,000 국비 70,000, 문광부 50,000, 과기부 20,000 사비 130,000, 공원 725,000	계 887,362 국비 70,000, 문광부 50,000, 과기부 20,000 사비 130,000, 공원 687,362	계 313,449 유료 146,384 무료 98,954, 부대 58,111	
제3회	인간과 가까운 과학 Humankind in touch with Science	202 8.9(금)~8.18(일) (10일간)	계 982,000 국비 60,000, 문광부 60,000 사비 200,000, 공원 722,000	계 952,229 국비 60,000, 문광부 60,000 사비 200,000, 공원 692,229	계 232,717 유료 112,655 무료 96,845, 부대 83,217	
제4회	전환과 이동 ↑ shift	203 8.7(목)~8.17(일) (11일간)	계 850,000 국비 50,000, 문광부 50,000 사비 50,000, 공원 750,000	계 1,092,189 국비 50,000, 문광부 50,000 사비 50,000, 공원 942,189	계 377,219 유료 141,644 무료 93,311, 부대 225,974	
제5회	조화와 소통 Interface	204 7.30(금)~8.9(일) (11일간)	계 960,000 국비(과학문화재단) 40,000 사비 120,000, 공원 800,000	계 1,020,372 국비(과학문화재단) 40,000 사비 120,000, 공원 880,372	계 258,476 유료 86,657 무료 39,899, 부대 131,880	
제6회	발상의 전환 변화 해결방 Science 180°	205 8.12(금)~8.21(일) (10일간)	계 1,630,000 국비(과학문화재단) 700,000 사비 100,000, 공원 830,000	계 1,422,487 국비(과학문화재단) 642,821 사비 100,000, 공원 679,666	계 283,333 유료 69,034 무료 77,119, 부대 137,180	
제7회	신나는 여름과학제상 Multi-Sciencing	206 8.11(금)~8.20(일) (10일간)	계 900,000 사비 50,000, 공원 850,000	계 753,653 사비 50,000, 공원 703,653	계 317,012 유료 75,083 무료 177,814, 부대 64,115	
제8회	꿈들이야 떠나는 과학여행	207 8.15(수)~8.19(일) (5일간)	계 550,000 사비 50,000, 공원 500,000	계 294,366 사비 50,000, 공원 244,366	계 195,251 유료 103,281 무료 49,648, 부대 42,322	
제9회	꿈들이야의 귀환	208 4.19(토)~4.21(월) (3일간)	계 550,000 사비 50,000, 공원 500,000	계 97,284 사비 50,000, 공원 47,284	계 81,291 공원(무료) 27,291 연계 54,000	꿈들이야 인스페이스 티별
제10회	꿈들이야의 귀환	209 4.10(금)~4.12(일) (3일간)	계 95,000 사비 30,000, 공원 65,000	계 88,000 사비 30,000, 공원 58,000	계 135,169 공원(무료) 71,669 연계 63,500	
제11회	우주특별시로 가는 세상 「우주여행」	209 10.9(금)~10.18(일) (10일간)	계 240,000 사비 120,000, 공원 120,000	계 158,125 사비 120,000, 공원 38,125	계 278,189 공원(무료) 142,694 연계 135,495	IAC 연계 행사
제12회	더 큰 대학만큼 과학기술이 만들어냈다!	2010 4.23(금)~4.25(일) (3일간)	계 300,000 사비 150,000 공원 150,000	계 88,605 사비 50,000 공원 38,605	계 176,920	엑스포과학공 원
제13회	자연을 생각하는 과학	2010 10. 7(목)~10.10(일) (4일간)	계 200,000 사비 100,000 공원 100,000	계 126,478 사비 100,000 공원 26,478	계 117,929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제14회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	2011.10.6(목)~10.9 일(4일간)	계 270,000 사비 200,000 국비 15,000, 공원 55,000			

## 2. 성과

### 1) 2011 행사 개요

- 2009-2010년 동안 봄/가을 년 2회로 나누어서 개최했던 행사를 가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정함
- 2회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은 행사의 적은 예산의 분산과 행사의 집중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년 1회 개최로 선회
- 2011년 행사의 개요

- ▶ 행사기간 : 2011. 10. 6(목) ~ 10. 9(일) / 4일간
- ▶ 장소 :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 ▶ 주제 :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
- ▶ 주관 :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 ▶ 소요예산 : 257,933천원(대전시 : 200,000천원, 국비: 15,000천원, 공사 : 42,933천원)

### ○ 2011 행사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공식행사	○ 기념행사(기념식 및 대전발명경진대회 시상식)	대 전 시
주제행사	○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 ▶ 노벨 뮤지엄 : 노벨의 일생과 노벨상 의의 등 전시 ▶ 주제행사 : 노벨물리, 화학, 생리의학 분야별 기초과학체험	과학공원
과학행사	○ 기초과학교실 - 노벨 화학존, 물리 및 생리의학존 ○ 위대한 과학자 놀라운 실험 ○ 스포츠 과학 및 놀이 과학 체험 ○ 인간과 공존하는 친환경 세상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 대전시과학동호회(7개), 대전영재교육발전연구회 등 ○ WIST 과학놀이터 - 대전충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공원
특별행사	○ 대덕특구 첨단과학체험전 - 정부출연기관 참여 ○ 과학 토크 박스 - 과학자 강연	과학공원
탐방행사	○ 과학버스 : 대덕특구 탐방 투어 ○ 도보 : '대덕 사이언스 길' 걷기	대 전 시
전시행사	○ 제 1회 대전발명경진대회 수상작 전시 ○ 디자인·브랜드 개발사업 우수 사례 전시 ○ WINK와 함께하는 원자력 공모전 수상작 전시	대 전 시
연계행사	○ 대전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가족 - 키즈패밀리데이' ○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의력대회(10. 8), 아름다운 가게	과학공원
문화행사	○ 공연행사 - 사이언스 매직쇼, 퓨전악기, B-Boy 공연 ○ 거리행사 - 아이언맨퍼포먼스, 빼어로, 키다리 등	과학공원

○ 행사의 홍보

구분	내 용
매체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OT 광고(9.22-10.9): 대전MBC : 10.1-10. 7(27회), KBS대전 : 10.1-10. 9(16회), TJB대전방송 : 9.22-9.28(33회)</li> <li>▪ 라디오 광고 : 3개사(1일 2회 이상)</li> <li>▪ 자막 광고 : 3개사(TV 드라마할 때 자막광고)</li> </ul> </li> <li>◦ LED 전광판 광고(1일 400회이상 / 계약조항임)</li> <li>◦ 오정역, 유성사거리, 대전시청사거리, 엑스포시민광장</li> </ul>
매체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인터뷰 및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9시뉴스, KBS 오전 7시뉴스, MBC 9시뉴스, TJB 8시 뉴스, TJB 생방송 투데이, MEN 뉴스 와이드, YIN뉴스, 데이비 뉴스, 키워드잡 뉴스, 복지TV, 대전시 인터넷 방송 등</li> </ul> </li> <li>◦ 라디오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947 전망대(생방송) : 10. 06(목), 17(금), MBC라디오 시대공감 : 10. 07(금), 오전 700</li> </ul> </li> </ul>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각급 학교 행사 홍보 및 가정통신문 발송</li> <li>◦ 대전교육정보연구원 : 각급 학교 인터넷 행사 홍보용 팝업창 게재</li> </ul>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 데스크 기자들 공원 방문 및 행사 스케치 (10.06), 10월 7일자 15개 신문에 행사 개막기사 및 사진 자료 게재</li> <li>◦ 일간지 신문보도는 3회에 걸쳐 보도자료 배포 :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전일보 외 17개 신문사 중복 게재</li> <li>◦ 신문매체 (보도기간 : 9. 13 ~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일보(6회), 금강일보(5회), 충남일보(3회), 아시아 투데이(3회), 조선일보(2회), 대전일보(2회), 충청일보(2회), 충청투데이(2회)</li> <li>▪ 연합뉴스(2회), 뉴스2(2회), YIN(1회), 디트뉴스(1회), 대덕넷(1회), CBS(1회), 한국인터넷뉴스(1회), 뉴스천지(2회), 불교공뉴스(1회), 시티저널(1회), ETNEWS(1회), 월간교육(1회) 등</li> </ul> </li> </ul>
인쇄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홍보용 리플렛 : 4,000부, 행사 안내용 리플렛 : 30,000부, 행사 미션북 : 4,000부</li> <li>◦ 대전시청, 관광안내센터, 유관기관 등 배포</li> </ul>
기관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홍보 :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등 유관기관 170개 기관에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홍보 협조 요청</li> <li>◦ 대전시 블로그 기자단 초청 방문하여 공원 투어 및 블로그에 내용 홍보</li> <li>◦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행사 홍보</li> <li>◦ 트위터, 페이스북에 과학축제 관련 경품행사 진행</li> </ul>

2) 행사의 결과

○ 전년도 행사(2010. 10. 7-10. 10 : 4일간)와 비교해서 공원 관람객 수는 약 28.3%가 많았고, 운영수입은 약 18.4%가 증가하였음

- 금년 행사에는 8일(금)에 단체 인원이 급증하여 관람권 수입이 증가했으나 영업매장 수입은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행사 관람객수

(단위 : 명)

구분	합 계	일 평균	10. 6(목)	10. 7(금)	10. 8(토)	10. 9(일)
2011	153,024	38,256	6,082	37,731	59,447	49,764
2010	109,012	27,253	23,232	24,004	25,383	36,388
증감	28.3%	28.3%	△73.8%	57.2%	134%	36.7%

○ 공원 운영수입

- 영업부스 임대 수입 2,000천원을 포함하면 총 수입이 31,509천원으로 26.5%가 증가하였으며, 영업매장 수입도 전년도 대비 4.2% 증가함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평균	10. 6(목)	10. 7(금)	10. 8(토)	10. 9(일)
2011	29,509	7,377	6,020	9,184	6,306	7,997
2010	24,913	6,228	5,677	4,859	6,441	7,985
증감	18.4%	18.4%	6%	89%	△2%	7.8%



○ 2010과 2011년 행사의 비교

구분	2011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2010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비 고
주제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	자연을 생각하는 과학	
기간	2011. 10. 6(목) -10. 9(일)	2010. 10. 7(목) -10. 10(일)	4일간
주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주관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과학공원	
소요예산	265,035천원	126,500천원	
행사규모	127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53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입장요금	무료	무료	
관람인원	153,024명	109,012명	
운영수입	31,509천원	24,913천원	
공식행사	축하기념행사(10. 8. 토)	없음	
과학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벨 주제행사(20개)</li> <li>▸ 대전발명경진대회 수상작품(2개)</li> <li>▸ 노벨상분야별 기초과학체험(14개)</li> <li>▸ 대덕특구 첨단과학체험전(15개)</li> <li>▸ 위대한 과학자 놀라운 실험(10개)</li> <li>▸ 원자력에너지 전시 및 체험(4개)</li> <li>▸ 인간과 공존하는 친환경세계상(10개)</li> <li>▸ 에너지동전전시회(3개)</li> <li>▸ 'WIST' 과학놀이터(3개)</li> <li>▸ 대전영재발전연구회(4개)</li> <li>▸ 과학가족(5개)</li> <li>▸ 대전과학동호회연합회(7개)</li> <li>▸ 스포츠 과학 놀이과학 체험(2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을 빛낸 과학자 거리</li> <li>▸ 한국원자력문화재단(4개))</li> <li>▸ 에너지관리공단(3개)</li> <li>▸ 참과학교사모임(2개)</li> <li>▸ 'WIST' 과학놀이터(4개)</li> <li>▸ 대전영재발전연구회(3개)</li> <li>▸ 대전과학동호회연합회(5개)</li> <li>▸ 기초과학체험(17개)</li> <li>▸ 특별행사(1개 기관 4개프로그램)</li> </ul>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문무대 및 거리무대 공연</li> <li>▸ 거리 퍼포먼스(10개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문무대 및 거리무대 공연</li> <li>▸ 거리 퍼포먼스(9개프로그램)</li> </ul>	
연계행사	▸ 대덕특구 탐방 투어		

3) 결과의 평가

-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노벨상 역사관과 노벨상 수상자들과 연관된 기초과학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학생들과 가족단위의 관람객에게 즐거운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았음
- 2011년 행사는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주제행사, 과학행사, 특별행사, 문화행사, 연계행사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제행사에 노벨과 노벨상 수상자들을 연계하여 물리, 화학, 생리학 분야의 기초과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게 운영함으로써 관람객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음
-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한 특별행사는 출연연들의 많은 협조로 KAIS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특별참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과학자 강연 등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과학자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만족도와 과학도시로서 대전 과학축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음
- 2011년도 프로그램 평가
- 주제

구분	내 용
잘된 점	▸ 포괄적인 주제가 아니라 ‘노벨’이라는 특정 주제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움을 자극할 수 있었음
이슈	▸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늦어진 경향이 있음
개선점	▸ 주제 구현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

- 개최시기

구분	내 용
잘된 점	▸ 없음 (올 초 대전시에서 행사기간을 확정함)
이슈	▸ 국립중앙과학과 행사일 같이 고객들이 분산됨 (일부 고객들은 두 곳을 모두 체험하였으나 대부분 고객들은 한곳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음) ▸ 대전 관내 행사들이 행사기간에 동시 개최되어 관람객 집객에 어려움 (효문화 뿌리축제, 이룸마 축제, 한밭나눔축제, 마라톤 등)
개선점	▸ 엑스포 개최 20주년 행사 대비 8월중 개최 방향 검토

- 무료 입장 및 관람

구분	내 용
잘된 점	▸ 공익적 이미지 제고 및 유관기관의 협조 원활 (과학도시로서 대전시와 과학공원 이미지 제고) ▸ 교육청 명의의 가정 통신문 발송 가능
이슈	▸ 과학공원 운영개선을 위한 수입증대 등 기여도 미흡 (공익성에 중점을 둔 행사로서, 영업매출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증가하였으나 기존 공원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음)
개선점	▸ 행사에 대한 대전시의 예산지원 증대 필요

- 프로그램 구성

구분	내 용
잘된 점	▸ ‘노벨상의 꿈을 향하여’ 주제로 내실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 (주제행사를 노벨 뮤지엄 전시와 노벨상 분야별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흥미로운 요소를 극대화시킴) ▸ 행사별 프로그램을 정문광장, 남측동선, 북측동선, 꿈돌이 광장까지 배치하여 공원 전역을 활용하여 배치함 (체험위주와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관람객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공원 전역에 관람객들이 분산되어 관람이 가능토록 함) ▸ 대덕특구 출연연구원 7개 기관과 전기연구원(창원)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축제의 인지도가 제고됨 ▸ 과학자 강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학행사 구현 ▸ WIST과학놀이터, 대전영재교육발전연구회, 대전시과학동호회 프로그램이 공원 행사에 맞게 발전되어 인기가 많음
이슈	▸ 예산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공원 전역에 분산 배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운집 효과가 낮아짐 (관람객이 대기시간 없이 관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은 좋았으나, 행사장 분위기 조성측면에서는 문제점도 노출) ▸ 프로그램수 대비 운영요원이 많아짐에 따른 교육이 미비하여 철저히 보완할 계획 수립 필요 ▸ 대덕특구 탐방 투어 신청자가 적어 원만히 진행 못함 ▸ 행사 일부 프로그램 운영 미숙 (노벨메달만들기 부분은 관람객이 집중될 수 있는 코너로 2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체험에 한계가 있었으며, 노벨 메달 시상식 코너는 운영의 미숙으로 관람객들이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음)
개선점	▸ 관련기관의 지원확대 요청 및 예산확보 필요 ▸ 신선하고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 발굴 및 섭외

### 3. 문제점

#### 1)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상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행사의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단순히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 중 하나가 아니라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행사라는 인식이 미흡
-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대전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좀 더 활성화되었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같은 과학관련 국책 사업의 유치경쟁에서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임

#### 2) 지역의 연구기관과 상호 연계협력이 미흡

- 지역의 여러 출연연구기관은 사이언스페스티벌과 관련 없이 연중 다양한 관학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지역의 연구원과 협조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사의 내용이나 지원의 측면에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협력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
- 차기 사이언스페스티벌의 계획안을 일찍 마련하여 각 연구원의 자체프로그램 운영과 조율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지역의 연구기관들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과학관련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의 관련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과 행사와 시기가 중복되는 등 분업적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지역 과학기술관련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프로그램

연구기관	행사기간	행사명
항공우주연구원	8/9-8/10	꿈나무 과학 멘토 '신나는과학 캠프'
	7/4-7/6	2011 대학생 항공우주 vision camp
	5/27-연말	과학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10-8/15	'2011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참가 EXCO(대구)
	4/23-24	2011 가족과학 축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10-15	2011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참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22-11/24	2011 산학연협력 EXPO
	11/7	제8회 WTA 대전하이테크페어 국제컨퍼런스
	10/28	꿈나무과학 멘토 'KRISS 신나는 단위스쿨'
	8/17-8/18	꿈나무과학 멘토 'KRISS 과학자가 되어보아요'
	8/10-8/15	2011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참가
	7/20	KRISS 찾아가는 과학캠프
	6/7	꿈나무과학 멘토 'KRISS 신나는 단위스쿨'
	5/6-5/8	시민과 함께하는 봄꽃축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4/9-4/10	제26회 사이언스데이 개최
엑스포과학공원	10/22-10/23	제2회 영재페스티벌 '창의야 놀자!'
	10/6-10/9	2011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8/13-8/21	올레!! 엑스포 여름방학 체험학습
	8/1-8/19	제4회 주니어닥터 행사
	4/2-6/12	튜링아트 대전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	1/1-1/19	어린이 창의체험 놀이동산
	1/22-1/28	제2회 국제청소년 과학창의대전
	1/29-1/30	한국학생 창의력 올림픽대회
	2/1-3/18	어린이 창의체험 놀이동산
	4/5-6/6	로봇체험 특별전
	6/1-6/28	찾아가는 창의인성 체험교육관
	6/29-8/10	제33회 전국학생발명경진대회
	8/11-9/28	제57회 전국과학전람회
	9/29-10/2	전국청소년 로봇대전
	10/6-10/9	수리과학 창의대회
10/9-10/10	제27회 사이언스데이	

- 정부출연연구원 및 과학관련 기관 등은 예산 및 인력 부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같은 기간에 개최되는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의 행사를 양쪽 동시에 참가하기가 어려움
- 2011 행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7개 출연연구원에서 참여하였으나 KAIST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과학축제만 참여하고, 다른 기관들은 중복해서 참여함에 따라 운영 인력 및 운영 예산 일부 지원 조건으로 참여하였음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과학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으나 출연연구원과 협력 관계가 부족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대덕특구 탐방 투어는 출연연구원의 사정으로 주말에는 일정이 없고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어 일반 관람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게 되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주중에는 단체관람객이 많고 주말에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으므로 ‘과학투어’ 프로그램은 주말에 더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전준비와 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3) 여타 지역 축제와 연계성이 부족

-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개최되는 10월 중에는 지역 내 여러 행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행사와의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대전지역에는 10월 중 ‘지상군 페스티벌’(10.5-10.9), ‘대전효문화 뿌리축제’(10.7-9), ‘한밭나눔축제’(10.8-10.9), ‘아줌마 축제’(10.8-10.9), ‘핑크리본 마라톤대회’(10.9)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과학축제 기간 동안 대전시 관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의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의 관람객 집객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뿐 오히려 역발상

으로 이러한 다양하게 개최되는 행사의 관람객들을 연계 유인하여 과학축제의 관람객을 확보하는 협력·연계 방안이 미흡

### 4) 행사에 대한 치밀한 사전 기획력 부족

- 지자체가 지원하는 규모가 큰 축제행사의 경우는 주제 선정이나 프로그램의 설계가 전년도부터 시작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이언스페스티벌의 경우는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준비를 할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행사일정과 주제가 선정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음
- 2011년도 사이언스페스티벌의 행사일정과 테마 선정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발굴과 연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 행사일정과 주제선정이 ‘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하도록 하면서 참여하는 기관 및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필요이슈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기획력의 부재로 인해서 동선의 어려움이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의 예측에 오류가 나타났고 운영도 미숙했던 점이 있었음
- 노벨메달만들기 및 노벨메달시상식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집중될 수 있는 코너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운영의 미숙함이 있었음
- 북측동선과 남측동선의 프로그램 연결이 미흡하여 단절됨으로써 참여자가 움직이는 동선상 프로그램을 순환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
- 참여자의 많은 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에 먹거리나 음료를 나누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참여자들이 몇 시간 동안 배고픔을 참으면서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분산적으로 제공

하여 공간적 운집효과가 저감되었음

-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공원 전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이 대기시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점은 좋았으나, 상대적으로 운집 효과가 낮아 행사장의 분위기 조성의 측면에는 약점으로 작용하였음

## IV.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 1. 축제의 성격

#### 1) 과학과 문화가 접목된 시민의 축제

- 흔히 사이언스축제는 교육적 의미가 부각되는 측면이 크지만 축제행사에서 지나치게 교육이나 계몽의 의미가 커지면 참여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축제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함께 즐기며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오락의 측면이 강한 행사이면 따라서 교육과 오락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되어야 함
-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기존의 다른 축제와 다른 점은 오락성과 교육성이 접목된 체험형 축제를 내세우고 단순히 관람하는 축제가 아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축제의 참여자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고 있으나 동시에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의 의미가 강했던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타깃집단의 범주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과학을 체험하면서 과학마인드를 고양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축제를 넘어서 지역의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기는 범 과학+문화 행사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을 타깃으로 한 경진대회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전국대상과 지역대상을 구분하여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국민이나 시민의 과학마인드 함양에 기여한 과학인에게 주는 표창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축제를 단순히 관광수입 등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시민의 소속감, 자긍심, 정체성을 고양하고, 대전

의 대외적 이미지가 홍보하는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2)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의 발전을 견인해 왔고 또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명실 공히 과학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어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상징적 의미가 더 커지고 있음
  - 200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이 강화되고, 과학기술관련 국책사업을 얻어내는데 타 지역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임
  - 그간 다양한 여러 축제가 지역 내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특정한 대표축제가 없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의 축제이므로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대전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축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만한 대표적인 축제를 발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대전의 전통적인 ‘한밭문화제’가 시민의 외면을 받으면서 ‘CO2축제’ 등 대안적인 축제발굴의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여전히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까지 실패한 대부분 축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관주도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며, 대전의 대표축제를 발굴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2.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추진체계

### 1) 민간중심의 축제위원회 구성

- 그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학교에 위탁하거나 대전광역시가 주도를 하면서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고 축제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축제는 의미 그대로 관에서 주도해 가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며, 관이 지원하는 역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축제의 자율성을 해치게 됨
  -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관이 주도하게 되면서 해마다 주제와 프로그램의 결정이 급하게 변하거나 결정되고 축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의 대학이나 여타 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는 종래의 기획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시민이 중심이 된 민간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단계부터 지역의 시민과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테마의 설정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공사의 지원을 받아 예산의 확보, 축제의 총괄기획자 선정, 참여단체 및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구성·개최하여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의 축제가 되고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축제위원회의 운영은 그동안 시정의 변화에 따라 축제의 테마나 일정이 급하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 기간이 촉박하여 체계적인 기획과 준비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행사를 만족스럽게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초래해 왔음

## 2)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여타 축제와 달리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기술관련기관, 교육기관, 시민 단체와 협력과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요구되는 축제라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주로 지자체와 엑스포공원이 중심이 되어 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축제위원회를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에 기초해서 구성하여 매년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의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다음 행사의 테마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은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참여가 가능한 과학기술 관련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구분	관련기관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관련기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연구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엑스포과학공원
교육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KAIST, 과학기술연합대학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대전대학교, 대덕대학 등
지원기관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도시마케팅공사, 대전컨벤션뷰로,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산업진흥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상공회의소, 관련시민단체 등

- 사이언스페스티벌의 행사는 중앙과학관에 상설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나 조율을 통해서 행사의 중복을 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기관은 중앙과학관과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인력을 분산시켜가면서 양쪽 행사를 모두 관여하기는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연구원의 경우는 정부부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럴 경우 지역의 행사인 사이언스페스티벌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중요한 점은 미리 정부부처의 주요행사나 계획을 점검하여 행사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공식적으로 미리 정부부처에 협조를 얻어 참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출연연구원의 협력을 얻어내어 행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축제의 일정이 각 학교의 시험기간과 겹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의 계획단계부터 교육청과 협력하여 각 학교를 대상으로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이언스페스티벌의 경우 평일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오고, 주말에는 부모와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체험활동 공문을 얻고, 시험기간을 피하여 축제의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함

### 3. 시민중심의 사이언스페스티벌

#### 1) 자원봉사의 활용

-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는 것이며, 이는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홍보효과도 높여주는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처음(1,2회)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활용했던 자원봉사자 제도는 대학생들 위주로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지불하면서 자원봉사를 활용했는데 예산의 절감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없앴는데 이처럼 금전적 보상에 기초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의미의 자원봉사자 활용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의 도우미 인력은 희생, 봉사가 뒷받침되고, 지식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실시되는 제도로 교육학과 학생은 졸업 전까지 60시간 교육봉사가 의무적으로 되어있어 사이언스페스티벌의 부스 활동이 교육봉사활동으로 스펙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틀 동안 16시간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줘도 큰 이점이 되기 때문에 교육대학 학생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함
-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시민 참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수동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생만이 아닌 지역민 스스로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그간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전국 단위의 수준에서 외부인의 내방을 목표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외부인과 더불어 지역민을 1차 타깃집단으로 하여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행사에 끌어들이므로써 축제가 지역민이 함께 놓고 즐기면서 외부인을 접대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기술인의 자원봉사가 요구되는 행사라 할 수 있는데 출연연구원의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활동의 참여에 대해서 귀찮아하

는 경향이 있어 출연연구원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센티브와 같은 공식적인 수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

- 축제는 즐기는 것인데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축제의 성격이 지나치게 교육적이거나 학습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둬므로써 참여자들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성공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게 교육이나 학습 목적으로 너무 갈 필요는 없으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부분과 융합된 축제로 가야할 필요가 있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부분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행사이며 비록 부모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중요한데 배고픔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과학을 활용한 먹거리 만들기 프로그램 발굴(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등)하여 운용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먹거리 제공하는 방식, 예컨대 규격화된 포장마차 등을 활용한 후드코너(겨울이면 어묵 등)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먹거리 코너를 신청하는 시민은 엄격한 검열을 거쳐 선별하며, 후드코너의 설치도 일정한 규격과 제한을 두어 축제의 성격과 분위기에 걸맞게 조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것이 컵라면 밖에 없고, 주체 측에서 마련한 돈가스 집은 워낙 제한적이어서 밥을 먹을 수 없었으며, 금년 행사에는 피자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대부분 컵라면 또는 핫



도그를 먹거나 싸운 김밥을 앉아서 먹을 곳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소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서구의 축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서 선별하여 규격에 맞는 깔끔하고 예쁜장한 후드코너나 기념품코너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경쟁을 뚫어야 함

#### 4. 도시마케팅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성격자체가 약간 교육적이고,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참가자를 동원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대전에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과학도시 대전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효과를 줌
- 방송 등을 통한 전국단위 홍보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홍보효과가 크므로 그런 광고비의 지출은 낭비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과감한 도시홍보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학도시 대전에 내방한 사람들이 당일로 일정을 마치고 가지 않고 숙박을 하면서 과학의 과학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을 고려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사이언스페스티벌의 홍보와 더불어 인근의 수목원, 대전예술의전당, 시립(이응로)미술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과학도시 대전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고 숙박이 가능한 문화도시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2) 주 5일제 수업을 겨냥한 도시마케팅

-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족단위나 학생단위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대전에 모일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에 대한 볼거리, 먹거리, 숙박 등 편의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대전은 과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왕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유스호스텔 문화가 잘 발달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숙박을 전제로 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시정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기존에 개최된 사이언스페스티벌의 내용과 역사를 소개하는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축제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축제의 상징적 의미와 전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끝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년도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므로 홍보책자에 역대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축제의 정통과 역사를 도시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력함
- 기존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새로운 아이템의 구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마다 축적되는 아이템은 더 깊이 있는 페스티벌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사이언스페스티벌 일정과 겹치는 다양한 많은 축제 행사를 단순히 집객수의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그런 주변의 다양한 프린지 축제들과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 도시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전의 도시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서 도시축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여러 관련기관 및 축제행사를 연계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V. 결론

- 대전이 축적해 왔던 대덕의 과학기술 역량과 더불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결정되면서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대전도시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시정에 휘둘리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축제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적인 기획력이 좀 더 강화되어 전문화·체계화 되어야 하며,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매년 위원회를 통해서 축제의 테마를 선정하고 책임기획자를 두어 총괄지휘를 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음
- 대전은 과학도시이며 따라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축제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대전 지역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은 사이언스페스티벌과 경쟁의 관계가 아닌 프린지 축제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 기획될 필요가 있음
-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의 인프라, 문화예술 자원, 먹거리와 볼거리 등은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관련단체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행사로 발전해야 함

○ 도움을 주신 분들

- 구남평 (한국한의학연구원 홍보협력팀장)
- 권은희 (국가핵융합연구소 홍보팀장)
- 김기덕 ( )
- 김민철 ( )
- 김서연 ( )
- 김영주 ( )
- 김윤수 (카이스트 홍보팀장)
- 김인영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팀장)
- 김현철 ( )
- 박창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홍보팀장)
- 배재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팀장)
- 서미원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담관)
- 엄경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팀원)
- 예용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충남지원장)
- 이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팀장)
- 이승무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과장)
- 임계현 (한국기계연구원 지식경제 홍보실장)
- 최기석 (엑스포과학공원 행사팀장)
- 최병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보팀장)
- 황훈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보팀장)